

## 대학본부 응답 지연에 '속수무책' 총학생회

지난 3월 3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수강신청 관련 간담회가 3월 2일에 취소됐다. 김준호(산공 4) 총학생회장은 3월 16일 학생지원팀에 수강신청 관련 간담회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학사지원팀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고, 간담회 일정은 미정이다(24일 오후 1시 기준)

학생회 측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 '한성대학교 총학생회'를 통해 "근로학생 수강신청 건과 새내기 새로배움터 일정 등으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리고 "3월 둘째 주 중으로 대학본부와 간담회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로 간담회를 미룬 이유에 대해서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간담회를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고, 분석을 통해 앞으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예고한 바와는 다르게 셋째 주인 3월 16일에 학생지원팀으로 간담회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24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간담회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이 24일까지 오기로 예정돼 있어, 현재까지 간담회 일정에 대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 회신 내용에 따라 간담회 개최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정 뿐만 아니라 간담회에 대한 세부 사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학생회 측은 "간담회 장소는 낙산관 대강당, 시간은 다음주 중 2~6시 사이에 열릴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 이전에 진행하려 했던 학생 설문조사에



▲ 한성대신문사와 인터뷰 중인 김준호(산공 4) 총학생회장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대해 계획된 것은 없다"고 반복했다.

이번 수강신청 기간에는 대부분의 교양 강의가 3학점 수업으로 변동됐다. 때문에 4학년 학생들 중 최대 이수학점인 20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겼다. 또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잔여인원이 줄기도 했다. 수강신청 기간 내에 강의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아, 불편을 겪은 학생들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24일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한성대학교 대나무 숲'에 '학사지원팀의 교직원인 근로학생의 수강신청을 대리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수강신청 관련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한편,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

해 수강신청 기간 중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전체 학생 간담회를 열고, 학사지원팀이 학생들을 직접 만나 설명 및 사과를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3학점 교양수업으로 발생한 강의 선택권 침해 문제, 75분으로 바뀐 강의 시간의 장단점 비교 및 개선 요구, 장비구비 제도와 강의 계획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설명과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을지, 간담회가 열린다면 수강신청 중에 있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 수강신청 문제, 언제 해명되나

### 지면안내

보도 02  
제대 상상력인재학부  
학생회 선거 진행



사회 03  
교육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기획 04/05  
대학생,  
대선후보를 만나다



학술 06  
외계언어를 배우면  
외계인처럼 생각할 수  
있다?

오피니언 07  
의회정, 삼학송 등

## 학군사관(ROTC) 58·59기 모집안내

2017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8기(남·여 모두 가능)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59기(남자만 해당)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7년 3월 1일~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 8.(토), 합격자 발표 : 4. 28.(금)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5. 1.(월)~5. 26.(금), 합격자 발표 : 6. 16.(금)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 6. 19.(월)~8. 11.(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 25.(금)
- 문의처 : 육군학생군사학교(043)830-6031, 지원대학 학군단(02)760-4178 (한성대 학군단)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제1대 상상력인재학부 학생회 선거, 23~24일 이틀간 진행돼

지난 3월 8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상상력인재학부(이하 상상력학부) 학생회의 설립에 대한 학생 간담회가 개최됐다. 상상력학부 학생회 설립은 지난 3월 6일 상상력인재학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총학생회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비대위는 상상력학부 부학생회장 후보 김도희(상상력 1) 학생을 중심으로 5명의 학생으로 구성됐다. 간담회는 총학생회와 상상력학부 신입생 간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상상력학부만의

학생회가 필요하지, 학생회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에 대해 논의됐다. 또한 비대위는 3월 9일, 상상력학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회 설립 찬반 여부와 학생대표 구성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338명의 학생 중 246명(72.7%)이 학생회 설립에 찬성했다. 또한 설립에 찬성한 246명 중 178명이 정학생회장을 재학생이 맡고, 부학생회장은 신입생 1명이 맡는 것에 찬성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더불어, 정학생회장 후보로 출마를 계획했던

오세창(산공 4) 학생과, 부학생회장 후보로 출마예정이었던 김도희(상상력 1) 학생은 선관위에 부학생회장을 재학생과 신입생 각 1명씩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 의견은 곧바로 채택됐다.

3월 13일, 총학생회는 상상력학부 학생회 선거권을 총대의원회로 위임했다. 그리고 14일, 고민수(응용시스템 3) 총대의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상상력학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발족했다. 이번 선거는 상상력학부 학생회에 관한 선거 세칙이 없어, 학생회칙 선거 시행 세칙 1장 3조 2항(단과대학 학생회장, 과학생회장 등의 선거는 해당 단과대학과 학과 학생회의 선거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규칙이 없을 경우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에 의거해 진행됐다. 고 의장은 이에 대해 "선거세칙은 상상력학부 대의원 선발 후,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를 통해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3월 15일과 16일을 후보 등록기간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를 유세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선거에는

정학생회장에 오세창(산공 4) 후보자, 부학생회장에 김지수(산공 2) 후보자와 김도희(상상력 1) 후보자가 출마했다. 그리고 23일과 24일에 투표가 이뤄졌다. 상상력학부의 학생회의 임기는 타 과학생회와 마찬가지로 내년 2월 말까지이다. 이에 따라 상상력학부의 학생회 선거가 늦어진 만큼 타 과학생회보다는 짧은 임기를 지내게 된다. 이후 선거는 정상적으로 2학기마다 치러지게 된다.

오 후보는 '학부실 신설', '재학생과 신입생 사이의 소통', '인재학부 행사 개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출마한 이유에 대해 "학부가 새로이 신설된 만큼,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상상력인재학부장과 학부실 구성 안건을 놓고 의논 중에 있다. 당선된다면 학부실이 구성되는 대로 국원을 뽑을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투표 결과는 3월 24일 오후 11시경에 공개되며, 결과는 한성대신문의 속보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 왼쪽부터 신입생 부학생회장 후보 김도희(상상력 1), 정학생회장 후보 오세창(산공 4), 재학생 부학생회장 후보 김지수(산공 2)

## #한성 #타임라인

### 성적관련 학사규정 일부 개정

지난 3월 1일 성적과 관련된 학사규정 일부가 개정되었다. 우선 학사경고와 관련된 학사규정이 변경되었다. 기존 전체 수업에서 5회(1/3) 이상 결석 시 F학점을 받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4회(1/4) 이상 결석 시 F학점을 받게 된다. 또한 평균학점이 1.5 미만일시 학사경고를 받는 것에서 1.75 미만일시 학사경고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편 조기취업자에 대한 규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결신청서마다 해당 강의 담당교수에게 서명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부터 공결 신청이 학사지원팀에서 승인되면 확인서를 교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서명과 단과대학장 서명이 각각 필요했지만, 단과대학장 서명이 폐지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지형 학사지원팀 차장은 "합리적인 학사관리 및 교육의 질 관리가 학사규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본교의 평판 증진을 통해 학생 취업 문제와 내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점수를 개선하는 것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황하람 기자 hwangharam@naver.com

### 학술정보관 독서클럽 운영

학술정보관이 지난 3월 6일부터 2017학년도 1학기 독서클럽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말까지 진행된다. 활동은 한 학기에 총 4번으로 일정과 활동시간은 각 그룹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지만 그 뒤에도 학기 중 4번 활동이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독서클럽은 멘토 역할의 교강사와 5-10명의 학생들의 그룹이 도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독서 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감상문, 교수 평가 등 개인별 평가에 따라 40-55의 비교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감상문은 교수와 학술정보팀이 평가한다. 단, 감상문 제출 여부와 결석에 따라 포인트를 더 적게 받을 수 있다.

곽동화 학술정보관 담당자는 "독서클럽은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고 팀원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독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경 기자 skrud0402@naver.com

# 사과대 및 영문·무역학과 학생회 보궐선거 종료

## 사과대, 투표율 미달로 추가 투표 끝에 당선

지난 3월 사회과학대, 영어영문학부, 무역학과 학생회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경제학과 학생회 보궐선거는 오는 3월 29일, 30일 양일간 진행된다.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회과학대 학생회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선거 기간이었던 3월 20일에서 21일 까지의 투표 결과, 사회과학대 총 재적인원 1,642명 중 투표 인원 770명(46.9%)으로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했다. 이에 22일에 추가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 인원 868명(52.7%) 중 찬성 697표(80.4%), 반대 148표(17.1%), 무효 21표(2.5%)로 집계됐다. 'A○A' 선본의 이태권(경영 4), 이민영(무역 2) 후보자가 사회과학대 정학생

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각각 당선됐다. 이태권 당선자는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세운 모든 공약을 이행해 이듬해인 학생회가 아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민영 당선자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앞으로 발전하는 학생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A○A' 선본의 공약으로는 '차대 신문고 설치', '사회과학대 학생회실 개방', '기존 과 행사 존속 지원', '봉사 캠페인' 등이 있었다.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영어영문학부 학생회 보궐선거가 실시됐다. 총 재적인원 244명 중 투표 인원 125명(84%), 찬성 105명(52.1%)로 당선된 'AIM' 선본의 김태우(영문



3) 정학생회장 당선자는 "과 학생들과 친구처럼 격의없는 사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 20일, 21일 양일간 무역학과 학생회 보궐선거를 했다. 총 재적인원 286명 중 투표 인원

144명(50.3%), 찬성 128명(88.9%)로 당선된 '가온' 선본의 윤선우(무역 3) 정학생회장 당선자는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원경 기자 parkwk94@gmail.com

### 기자사령

- 임 부국장 유은강(영문 2)  
수습기자 김중민(국문 2) 김수현(인문 1) 임경익(상상력 1) 강예림(사회과학 1)  
이나경(패션 1) 이혜민(패션 1) 이지영(패션 1) 황하람(IT 1)
- 면 문지수(영문 3)

### 동정란

- 최천근 행정학과 교수  
최 교수는 올해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정책학회 영문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IJPS)'의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공호근 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공 교수는 지난 3월 15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2017년 핵심가치내재화과정'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황동현 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황 교수는 지난 2월 20일 '바람직한 ICT정부 조직개편을 말한다'를 주제로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한 좌담회에 참여했다.

#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에서는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글쓰기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생
- 상담 기간 | 2017년 3월 6일(월) ~ 2017년 6월 2일(금)
- 상담 영역 | 리포트, 서평, 칼럼, 프레젠테이션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글
- 상담 내용 |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목차 구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글쓰기 전반
- 신청 방법 | ① 글쓰기 센터 홈페이지 상담의 메뉴에서 '상담' 상담 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② 상담 희망 일시 24시간 이전에 신청(신청 확인은 MY PAGE)
- 비교과 포인트 | 지금 포인트 10점(최대 포인트 30점)
-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진리관 104호, ☎ 02-760-4354)

##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 교육부,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 발표

## ‘혁신의 체질화’ 목표로 대학통폐합 등 신설

지난 3월 9일 교육부에서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 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번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은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개혁(2014년~2016년)에 이어 진행되는 후속 구조개혁으로,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개혁에 있었던 단점들을 보완해 추진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기본계획에 따르면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18년으로 예정돼 있으며,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폐교시킬 예정이다.

**핵심은 질적 개선**  
교육부는 기존 1주기 대학 구조개혁에서 정원감축 목표였던 4만 명을 훨씬 초과한 5만 6천 명을 감축했으므로 정원감축에 있어서는 저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기계적 정원감축’을 지양할 것이라고 밝히며, 실제로 지난 1주기 대학 구조개혁에서 실제 감축량의 50%만 인정했던 야간대학 인원 축소를 주간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겨 정원감축을 시행했던 1주기와는 다르게 1차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자율개선대학’과 그렇지 못한 ‘등급이 부여되는 대학’으로 나눌 예정이다. 등급이 부여되는 대학은 2차 평가를 받은 후 X·Y·Z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단, 평가점수에서 상위 10%에 든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자율개선대학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개편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X등급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제외하면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지만, Y등급과 Z등급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과 단계적 정원감축을 받는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Z등급 대학에 대해서 교육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한다. 이와 함께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와 ‘대학운영의 건전성’이 평가항목으로 추가된다. ‘대학운영의 건전성’ 항목에는 ‘구성원의 참여·소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주기처럼 대학본부의 ‘선실행 후보 개혁’으로 마찰을 빚을 일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삼척대학교는 강원대학교에 삼척캠퍼스로 통합되었다.

대학 구조개혁평가 등급별 개선 사항		자율개선대학	자율적인 개선
등급이 부여되는 대학	X등급		정원 감축
	Y등급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불가 국가장학금 II 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Z등급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불가 국가장학금 전면 제한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4년제 대학에서 감축된 입학정원 21,867명 중 77%에 이르는 16,914명이 지방대학에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국 4년제 대학 수의 20%를 차지하는 서울권 대학은 이중 7.5% 정도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으로도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교육부도 지방대학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학 간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우선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간 중에 통폐합을 진행한 대학은 이번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정원감축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교육부는 통폐합을 진행하면 보건·의료 계열 정원이나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을 우선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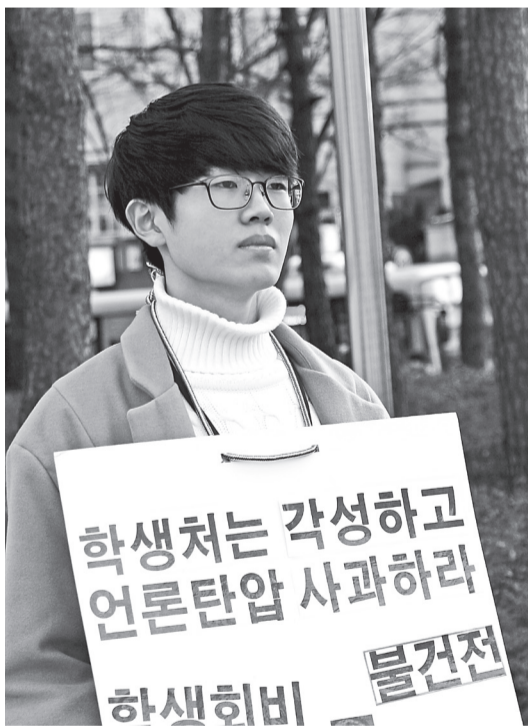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지방대학 통폐합에 따른 자생력 확보는 교육부가 이미 2000년부터 ‘국공립 통폐합’ 정책으로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의 지방거점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는 삼척대학교를 흡수하여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로 만들었고, 강원도의 지방국립대인 강릉대와 원주대 역시 ‘강릉원주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부산의 4개 국공립 대학이 ‘연합체제’를 추진하고, 세종대와 홍익대가 서울캠퍼스와 지방캠퍼스를 통합하는 등 대학가의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2주기 대학 구조개혁이 어떤 과탄을 이끌고 올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인다.

**문제는 지방대학이다**  
1주기 대학 구조개혁의 목적 중 하나는 학령인구 급감에 앞서 서울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말은 제주도도 사람은 한양으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서울 선호 현상이 뚜렷한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지방대학부터 폐교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작년 9월 18일 유은혜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 입학식 날, 강제 수거된 서울과기대 신문

## 서울과기대 신문사, 신문 강제 수거에 대한 성명문 발표



▲ 김선웅 편집장이 1인 시위하는 모습 사진 출처: 서울과기대신문

지난 2월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의 가방에 들어있던 서울과기대신문 2000부가 학생처와 학생회에 의해서 강제로 수거됐다. 이날 강제 수거된 서울과기대신문 제582호에는 건설시스템공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학생회비 횡령 사건 기사가 실려 있었다. 신문이 강제 수거되기 하루 전 날,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구성원 일부가 서울과기대신문에 신문 수거를 요청했다. 신문을 수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중운위는 기사에 실린 학생의 진술이 실제와는 다르고, 일반 학생의 실명을 언급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선웅 서울과기대신문 편집장은 오보에 대한 정정과 신문 배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신문 수거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일, 총학생회장과 중운위는 김 편집장과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협약이 끝나기도 전에 신입생 가방에 들어있던 신문은 모두 강제 수거됐다. 이에 지난 2월 20일, 서울과기대신문은 명백한 언론 탄압 행위라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탄압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을 학교에 요구했다. 성명문에서 서울과기대신문은 중운위의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학생의 진술이 실제와 다르다”는 부분은 녹취 파일을 공개해 오보가 아님을 증명했다. 또한 학생의 실명을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제5조 2항의 2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략)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법령 제3조 3항 ‘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는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성명문을 발표한 후, 김 편집장은 2월 22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4일 뒤인 2월 26일, 총학생회장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과기대신문은 신문을 강제 수거한 주체라고 인정했던 학생처가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사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다음 호에 내면 되지 않느냐’, ‘신입생들이 기사를 봤을 때 적당하지 않다’, ‘신입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고 싶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학교의 언론 탄압에 대해 김 편집장은 “언론 탄압 문제가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다. 대학 언론을 독립된 언론 주체로 보지 않는 경향이 대학 전체에 퍼져있는 것 같다”며 “학교와 관련된 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교직원들을 찾아가면 학생 취급당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현재 1인 시위를 중단했고 학생처는 아직 서울과기대신문에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과기대신문은 3월 20일자 신문에 추가성명문을 게재하는 등 학생처의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 이 기자의 정서사건

##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범치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최고심판기구이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민·형사심판을 담당하지 않으며, 위헌법률심판·정당해산심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과 같은 특수한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관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한다.

최근 이루어진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의 최고 화두 중 하나는 탄핵심판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었다. 탄핵심판이 진행됨에 따라 언론사들은 각 재판관의 성향과, 법정 내의 발언들을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을 대리했던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을 때는 가히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이 그 입에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에게 파면’을 선고했던 헌법재판소는 정확히 어떤 기구일까?

헌법재판소는 범치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심판기구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라는 이름과 ‘재판관’이라는 구성원 때문에 종종 사법부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가 담당하는 일반적인 법률사건들을 다루진 않는다. 대신 법률 그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거나, 이번에 사건번호 ‘2016헌나1’로 배정된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특수한 사건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 의해서 선정된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각 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대법

원장이 각각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만, 의회는 다수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 제1야당, 여야 합에 의해서 각각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지명자에 따라서 각 재판관의 재판 성향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대개 지명자와 일치하는 재판 성향을 보인다. 다만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단 ‘중도’ 성향으로 인식하거나 향후 판결 성향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최고법인 ‘헌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번처럼 국가 원수를 파면시키는 것은 물론, 이미 효력이 발휘된 법률을 정지시키거나 정당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구해산 시키기도 한다. 2014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원내정당으로 무시 못 할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통합진보당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그 판결이 가지는 막대한 파장 때문에 종종 논란을 빚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 번복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절차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8인 재판관 체제’가 문제가 됐다.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판결하는 것은 공정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7인 혹은 8인 체제에서 여러번 판결이 내려진 선례가 있으므로 이런 지적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의미는 바로 ‘법치(法治)’의 수호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최고법인 ‘헌법’을 수호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인치(人治) 사회를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다. 적어도 헌법재판소가 유지되는 한, 헌법은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 대학생, 대선 후보에게 묻다

## 더불어민주당



2017  
안희정과  
시대교체



▲ 3월 7일 진행한 안희정 총남지사와의 기자간담회 영상은 이 QR코드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現 충청남도 도지사
- 前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팀 팀장
- 前 꼬마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 당직자
- 고려대학교 철학과 학사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 엑소'라고 불릴 정도로 본인의 지역적 입지가 탁월하다고 평가 받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이다. 그는 최근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폭넓은 정책과 발언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에 의해 대거 밀려온 '중도 보수'의 표를 끌어담았다. 때문에 현재까지 진보 후보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외연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후보이기도 하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 중 반미운동을 하다 퇴학 처분을 받았고,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도 끊임없이 '운동권'에 몸 담았던 정통적인 진보 인사다. 또한, 노무현 캠프에 참여한 경력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전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진노' 성향의 인사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최근 보수색이 강한 그의 행보로 인해 일부 진보 지지자들에게는 '진보의 배신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바른정당



정의로운 세상!  
용감한 개혁!  
유승민



▲ 3월 16일 진행한 유승민 의원과의 기자간담회 영상은 이 QR코드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現 바른정당 국회의원
- 前 여의도연구소 소장
- 前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前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연구교수

유승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치계의 유명인 '경제통'이다. 또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4선에 성공한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바른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다. 기존 보수에서 분리되어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는 유 의원은 '경제'와 '안보'라는 보수적인 가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을 혁파하고 중소기업·창업을 활성화하는 '혁신경제'를 새로운 경제모델로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국회 국방위원직을 8년 가까이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사드를 더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당 19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 3월 20일 진행한 심상정 대표와의 기자간담회 영상은 이 QR코드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 現 정의당 상임대표
- 現 정의당 국회의원
- 前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학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8년 대학에 입학하여 박정희 대통령 피살, 5·18 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사건들을 겪으며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그녀는 이미 3월 경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선 후보이자 대선 주자들 중 유일한 여성후보이다.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은 친노동 친서민의 정통적인 진보 정당이며, 현재 원내정당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평가된다. 그녀는 이번 대선정국에서 '동물권 헌법 명시', '최저임금 1만 원', '클리어업' 등 진보적이면서도 자극적인 정책으로 다양한 이슈를 형성하고 있다. 그녀는 청년친화적인 행보로 팬 카페인 '심크러쉬'를 가지고 있으며, '심블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등 대중성을 겸비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 후보별 주요 공약 및 정책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후보 및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점은?**

A. 본인은 정당인이자 직업 정치인이다. 민주당에서 10년, 고교 운동권부터 38년 동안 정치를 했다. 대통령 출마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도전이다. 지금 시대적 사명은 박정희 시대의 낡은 시스템을 민주주의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혁신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일 자신감이 있다. 다른 후보들은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원칙적인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의회와 대통령의 새로운 협치 모델 제시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한다.

**Q.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시대에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A. 청년 취업 문제에 있어서는 응급처방으로 청년 취업과 노동 촉구를 위한 취업 및 고용 지원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일자리 숫자 자체가 부족한 데다가

청년들이 갖고 싶어 하는 일자리도 적다. 또한 좋은 일자리는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는 스펙싸움에서도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동일가치-동일노동이나 노동조합 지원 및 장려, 수요-가격의 원칙에 의한 일자리 임금 조정, 대기업 수요독점 구조 문제 해결이 그것이다. 특히 대기업 수요독점 구조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과 대기업의 수직적 하청구조를 혁신해야한다. 이것들이 해결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Q.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는데**

A. 공공부문 일자리가 현 상황에서 응급 처치라는 점은 동감이다.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의료 혹은 소방과 같은 사회 서비스나 국방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는 사회의 선순환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당장 창출해보야 장기적인 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보다는 일자리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불황에 일자리가 팍팍 늘어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정작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나는 미안해서라도 당장 확 나아진다고는 말 못하겠다.

**Q. 노동시장 유연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는데**

A. 4차 산업시대로 나아가면서 IT 산업 서비스와 기업의 주기는 매우 짧아졌다. 더 이상 한 번 취직으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는 '뽕생직장'의 개념은 지속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계속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비정규직과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불가피하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해야한다. 임금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준다. 또한 실직 상태를 대비하여 실업급여와 4대 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다.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은 해고는 쉬운데

재취업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쉬운 해고만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마비된 상태. 기업 창업 문화 발달과 같은 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Q. 후보가 철학과 비전은 있으나 뚜렷한 정책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A. 대한민국은 대통령 혼자 다 이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은 시대 사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사람이다. 성평등, 보육, 육아, 사회복지 등 수많은 정책을 출마자에게 혼자서 다 대답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다. 지난 대선에서도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노인마다 20만 원씩 뿌리라고' 말하는 대신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은가'를 물었어야 했다. 명확하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해 밝히는 것. 본인은 이런 관점으로 경선에

입하고 있다. 노태우 시절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국가예산안은 바뀌어봐야 5푼 이내밖에 안 바뀌었다. 중요한 것은 배를 서쪽으로 몰지 동쪽으로 몰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 재정계획은 따라오게 되어있다. '국방장관'이나 '문체부장관'이 아닌 '대통령'을 뽑기를 부탁드린다.



**Q.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시대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A. 지금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일자리 100만 개 200만 개 만든다"는 소리는 모두 허무맹랑한 소리다.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에 22조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신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세금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만든다고 해도 정권 5년 지나고 나면 공공부문 고용자를 모두 해고할 것인가? 정년까지 다 지켜줘야 하지 않는가. 이런 완전히 포퓰리즘 공약이다. 때문에 본인은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창업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겠다. 미국이나 중국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아 경제적 우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되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서 창업을 안 한다. 창업 통로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 실패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혁신 안전망'을 개설하겠다. 창업해서 성공하는 건 일부더라도 그 일부가 수천 명을 먹여살릴 수 있다. 이것이 활력 있는 경제다.

재벌로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한다.

**Q. 이공계 지원 사업을 공약한 걸로 안다. 이는 지금 교육부 정책과 동일한데 인문계는?**

A. 이공계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대학이 너무 많다. 대부분의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이 없으면 대학 자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있다. 교육부 역시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들에게 시시콜콜 간섭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의 위기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은 이공계에 치중하여 인문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 이공계를 통해 기술적인 측면을 해결한다고 해도 결국 창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인문계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나올 수 있다. 물론 이공계가 중요한 것은 맞으므로 효과적인 투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인문계 예산을 대폭 삭감하지는 말아야한다.

**Q.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창조적 해체'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정책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미다. 여성정책을 여성가족부라는 하나의 부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여성정책이란 다른 모든 부에서 다 추진해야하는 것이다. 경력 단절 등과 같은 문제는 고용노동부,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처럼 각 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이런 여성정책에 필요한 모든 권한과 예산을 여성가족부에 다 주면 여성가족부가 정부의 질만을 집행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Q. 최근 논란이 되는 사드배치를 오히려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안다.**

A. 사드는 국민의 목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시는 이미 계약하고 정리까지 끝낸 상태다. 만일 대선 전에 배치를 완료할 수 있다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군이 사드를 설치하는 제1목적은 주한미군의 보호다. 사드 1포대로는 유감스럽지만, 5천만 국민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 본인은 예전부터 사드를 2개 내지 3개를 국가예산으로 구입하여 국내에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국민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킬 체인이나 KNMD와 같은 방어무기를 개발하고는 있지만, 언제 개발될지는 알 수 없다. 개발은 계속하되 사드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한다.

**Q.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는 중부담-중복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A.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도 적게 받는 저부담-저복지 사회다. 스웨덴, 독일 같은 유럽의 '복지국가'는 고부담-고복지 사회이다. 우리나라는 저부담에서 중부담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정치인들이 복지는 이야기해도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다. 하지만 중복지로 나아가려면 중부담은 필수적이다.



**Q.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 시대에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A.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8%에 이른다. 또 정의당이 졸업유예자나 알바생과 같은 청년들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추산한 '실질 청년실업률'에 따르면 사실상 실업상태인 청년은 20%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고용문제는 양적인 문제보다는 질적인 문제가 크다. 세계에서 제일가는 대학진학률을 자랑하면서도 대학을 나온 고학력 인재가 일할 만한 일자리는 없다. 이런 고학력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이미 '청년고용특별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기업이나 공기업은 정원의 5%를 청년으로 채용해야한다. 하지만 실제로 입법이 되지 않았다. '청년실업부조'도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실업부조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50% 수준의 월급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이미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을 '청년 사회상속'의 개념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매년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5조가량 된다. 이 돈을 당시 20세인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매년 60만 명 정도의 청년이 20세가 된다. 또한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청년 1인당 1천만 원 정도의 일괄상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박근혜 정권의 대학교육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후보의 대학교육 정책은?**

A. 박근혜 정권의 대학교육은 한마디로 문지마 구조조정이었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민주화해야한다.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추진기구 자체에 대학구성원들이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의당 역시 대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학평의회를 제안한 바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에는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실시할 것이다. 해결되어야하는 또 다른 문제가 '대학서열화'다. 이를 위해서 '대학연계협력추진법'을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간의 연계협력력을 학점 교류 등의 공동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점차 공동학위제, 통합 전형 등으로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연계협력력은 처음에는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실행하다가 단계적인 대학 클러스터를 통해 사립대까지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대학 공공성 훼손의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한다.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인하대학교의 대학공공재단 계열사 투자 문제, 이화여대의 미래대학 사태 등 돈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대학 공공성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연애 상대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클리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클리어법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공약을 낸 이유는 신중 폭력이 SNS나 여러 분야에서 증증하고 있는데도 형사처분되는 것은 거의 없을뿐더러 있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성(姓)에 대한 문제는 보통 사인(私人) 간의 일이나 치정 문제로 간주되어 소극적으로 다루어진다. 유럽이나 여러 선진국처럼 이런 문제를 강력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을 제고해야한다. 한편, 성범죄에 대한 통제나 제제가 취약한 것 자체가 범죄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클리어법은 3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 후에 지극히 제한적인 관계자에게만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제도다.

**Q.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지 않은가?**

A. 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알바생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저성장이 \*뉴노멀(New-Normal)인 시대에서 내수를 진작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이다. 현재 노동자들은 적게 벌어서 소비할 돈이 없다. 소비가 줄면 골목시장 역시 덩달아 죽게 된다. 만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많이 받게 되면 소비 역시 증가해 골목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저임금을 16% 정도 올리면 된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16%가 넘었고,

김영삼 정권 때는 IMF라는 약재에도 11%까지 인상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 원은 그렇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며, 본인이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다.

\*뉴노멀(New-Normal) :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



# 외계언어를 배우면 외계인처럼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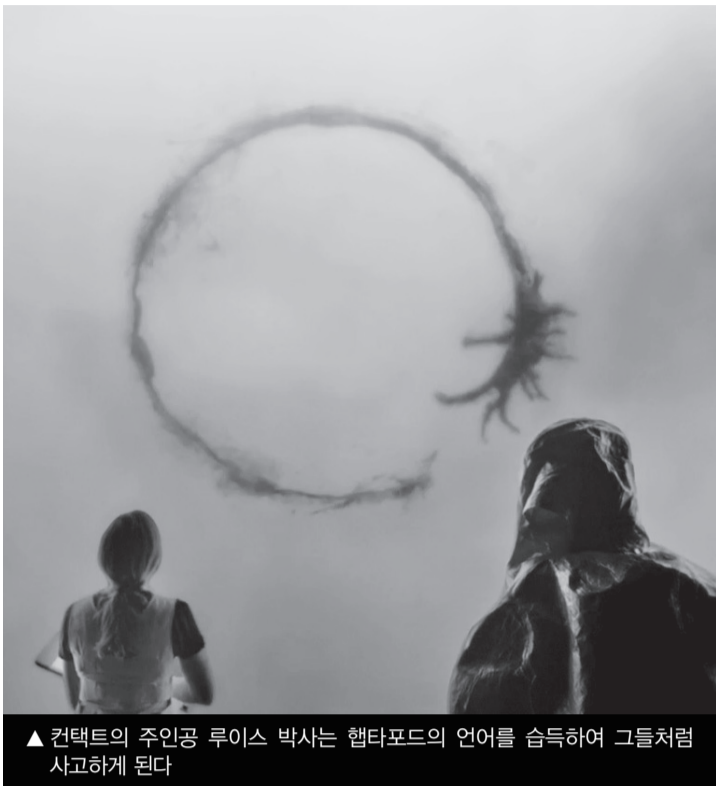
지난 2월에 개봉한 영화 '컨택트'의 주인공 루이스 벅크 박사는 과거-현재-미래를 동시에 인지하는 외계 생물체인 '헵타포트의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그들과 같이 미래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영화에서도 설명되듯이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피어와 워프의 가설'에 따른 것이다. 루이스는 외계인의 언어를 통해 그들과 동일한 사고체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언어지배론'을 근대 최초로 언급한 학자는 19세기 독일의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다. 훔볼트는 "언어는 그 민족의 고유정신을 표현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제국주의 시대에 서구 열강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열등한 민족의 언어는 태생적으로 열등한 고유정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우월한 언어를 학습시킴으로써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와 고유정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은 20세기까지 쭉 이어졌다. 일제가 말년에 조선어를 금지했던 것과 최근까지도 '순우리말 지키기 운동' 등이 있었던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선 예시들은 한국어가 우리 민족의 고유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하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간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그 인간의 언어습관에 의한다는 '사피어와 워프의 가설'은 20세기 당시 학계에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가져왔다. 언어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가 주장하고 그의 제자 벤자민 리 워프가 발전시킨 이 가설은 아누이트어를 사례로 제시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졌다. 아누이트어에서 눈(雪)을 표현하는 단어는 7개인데, 반면 영어에서 눈을 표현하는 단어는 그냥 눈(snow) 하나일 뿐이다. 이처럼 아누이트어는 영국인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언어에 따라 눈을 7개로 나누어 인식하고 사고한다.

이런 가설에 대해 고창수(응용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교수는 "언어가



▲ 컨택트의 주인공 루이스 박사는 헵타포트의 언어를 습득하여 그들처럼 사고하게 된다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누이트어에 눈을 표현하는 단어가 7개라는 점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적

절한 사례로 보긴 힘들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누이트어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와 같은 '포함어'이기 때문이다. 포함어는 단어와 문장이 구분되지 않는 방식의 언어인데, 이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름으로 '늑대와 같이 춤을' 등과 같은 어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들에게 '늑대와 같이 춤을'은 단어나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례는 많이 발견되고 있다. 프랑스인과 스페인 사람에게 '만약 타자가 당신에게 말을 건다면 무슨 목소리일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이 '여성의 목소리'라고 답변했다는 연구결과가 바로 그 중 하나이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에서 타자는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영화 '컨택트'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 고 교수는 이를 피쳐폰과 스마트폰의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피쳐폰은 스마트폰처럼 통화와 문자가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즉, 인간

(피쳐폰)이 외계생물체(스마트폰)의 언어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들처럼 초월적인 사고능력을 완전히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피어와 워프의 가설처럼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학설은 현 학계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비록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줄지언정, 지배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영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언어가 그 사람의 사고를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이야기다.

현대에 이르러 각국의 언어는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뽀박켄트'나 '쿨하다'와 같이 '한국어화'된 외국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만일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대체 어느 나라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은 사람이고, 문화는 문화이며, 언어는 언어일 따름이다.

이주형 기자 ljh@hansung.ac.kr

## 성북구 이야기

### 아름다운 무덤, 의릉

한성대입구역에서 1111번 버스를 타고 새석관시장에 내린다. 조금 경사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후문이 보인다. 후문 내의 산책로를 따라 정문으로 가다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의릉이다. 의릉은 경종과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선의왕후의 능이다. 왕릉이라면 누구나 웅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의릉(懿陵)을 풀이하면 '아름다운 무덤'이 된다. 하지만 의릉을 직접 보면 왕릉치고는 초라한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다. 이는 후대의 왕이 선대왕의 권위에 따라 능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경종 재위 시절 그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의 왕릉은 능을 조성하던 당시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 풍수지리에 따라 도성(사대문)을 기준으로 하여 100리 내 명당에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경종의 뒤를 이은 영조가 경종의 장례를 준비했고, 조선시대 당시의 지명인 양주 중량포 천장산에 능을 조성했다. 이후 행정구역명이 개편됨에 따라 현재는 성북구의 소재가 되었다.

모든 조선의 왕릉 중 의릉이 지닌 특이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봉분을 위아래로 조성했다는 것이다. 보통은 좌우로 나란히 하거나, 한 봉분에 왕과 왕비를 같이 모신다. 하지만 의릉은 풍수지리상의 이유로 각 왕릉을 위아래로 배치했다.

다른 한 가지는 석물조각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 옷을 걸치고 있는 무석인이 표범피리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다. 표범 가죽은 예부터 용맹한 장수를 상징하는데, 왕과 왕비의 영혼을 굳건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의릉의 석물은 궁중에서 활동하던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조각 기법이 우수하고 각종 문양이 섬세하다. 또한 모란, 불로초, 난초 등 갖가지 길상문이 다양하게 조각되어 매우 화려하다.

다른 조선 왕릉들처럼 의릉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우리는 의릉 조성 당시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1962년 중앙정보부가 이전을 목적으로 의릉의 능역 13만여 평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1972년부터 정식으로 관리했다. 중앙정보부가 능역 내에 위치한 이후부터 의릉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사이 수복방, 재실 등 능의 관리나 제사를 위한 건물은 소실되었으며, 의릉의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고, 왕릉의 우측 능선을 깎아 축주장을 조성하는 등의 훼손이 있었다.

훼손에 몸살을 앓던 의릉은 1995년 중앙정보부 건물이 이전되면서 접근 금지 구역에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이후 의릉 복원 사업이 추진됐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외래 수종 제거, 인공 연못 철거 등 의릉 복원 공사가 진행됐다.

현재 문화재청 산하 조선왕릉관리소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의릉은 능침 바로 아래 정자각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능침은 별도의 허가를 받은 후 출입할 수 있다. 시민들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의릉. 다시는 '아름다운 무덤'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박원경 기자 parkkw94@gmail.com



▲ 의릉의 일부인 경종의 능

## 교수님의 책갈피

### 서구 사회에서 예술이 가진 힘

『예술, 서구를 만든다』 - 이충진 교수의 추천 도서

“상상력은 현실에 얽는 어떤 것을 생각해 내고 실제로 구현해내는 능력이다. 그런 상상력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전경이 바로 예술이다. 예술을 자기 삶 속에서 계속 접하고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상상력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예술 작품은 당대의 상황이나 분위기 혹은 예술가들의 관념이나 신념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은 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단순히 예술 작품을 보여주고 그 작품에 어떤 기법이 쓰였는지를 설명하는 해설서가 아니다. 철학적인 내용과 함께 깊이 있는 해석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여주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일깨워준다. 그리고 고대 원시시대 벽화를 비롯하여 근대 시대의 그림과 조각상 등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 과연 예술이 그 시대 상황 안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야기한다.

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술과 철학을 적절히 섞어 작품을 해석하는 작가의 통찰력이다. 한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배경 또는 구도나 균형 등을 통해 철학적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작가의 통찰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작품에 얽힌 신화나 이야기들은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적 내용들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구 사회의 흐름 안에서 예술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책에서는 오히려 예술이 서구 사회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대표적인 예가 '루브르 박물관'이다. 과거 사회혁명을 이룬 부르주아들은 시민 사회를 묶어 줄 힘이 필요했다. 그 힘은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념은 아니지만 이념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 힘이 바로 예술이라고 작가는 밝히고 있다. 예술의 힘을 간파한 부르주아들은 과거 찬란했던 궁궐 안에 예술 작품들을 모음으로써 궁궐을 박물관으로 탈바꿈 시켰다. 여기에

모인 예술 작품들은 구성원 개개인이 스스로 내면의 힘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사회제도가 도덕, 자연과학 등이 번질되었을 때,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왔다. 이는 서구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통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단순히 예술 작품에 대한 설명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읽기 어려운 책일 수 있다. 철학적 미학이라는 쉽지 않은 내용으로 책을 구성하고 있어서 책장을 술술 넘기기는 더욱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읽는 이가 많은 생각과 상상을 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독자가 폭넓은 사고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예술 작품을 그냥 보고 넘기는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자. 물론 이러한 것도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작품을 단지 감상하는 대상, 보고 넘기는 것 그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굳이 전시관을 직접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 예술을 직접 마주했을 때의 감동, 기쁨, 슬픔, 고통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과 작품이 품고 있는 철학적 가치, 내재된 의미 등을 깨닫고 이해한다면 예술의 참맛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술을 이해함으로써 상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예술, 서구를 만든다  
저자: 이순예  
출판사: 인물과 사상사  
출판일: 2009. 01. 29

책 소개 : 『예술, 서구를 만든다』는 예술을 통해 서구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한다. 단순히 예술 작품을 설명하지 않고 철학적으로 깊이 해석한 책이다. 과거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예술의 힘을 이용해서 서구 사회를 통합하고 건설했는지를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작가는 현대인들이 21세기 현 시대에 예술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준다.

### 의화정

프로이트 라캉 정신분석의 대명제는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라는 명제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타자'라는 타인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존재라는 말이다. '어머니', '신(God)', 상징계(언어) 등이 대표적인 대타자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닌 부모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 사회에 딱 들어맞는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이럴 경우 설사 어렵사리 그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내가 이럴려고 000이 됐나?"라는 자괴감에 찌든 어법은 몰락한 한 정치가의 낡두리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불행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

### 욕망해도 괜찮아

주는 징후일지 모른다. 정신분석은 환자가 대타자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기만의 욕망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의 윤리'이다. 그렇다면 '욕망'이란 무엇인가? 욕망과 비슷하지만 구분되어야 할 개념이 바로 '요구'와 '욕구'이다. '요구'란 사랑받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을 가리킨다. 이는 정신적·물질적 필요의 총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욕구'란 주로 생물학적 필요의 총족을 가리킨다. 요구에서 욕구를 뺀 부분이 욕망이다. 그렇다면 욕망이란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총족되지 않는 어떤 심리적 필요의 총족을 기대하는 것이다. 즉 '나의 나다움'을 찾고 싶다는 바람이다. 욕망은 욕심과는 다르다.

후자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고자 하는 행동인데 반해 전자는 내 마음의 텅 빈 곳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로의 여행'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욕망의 대상은 어느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완벽하게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이를 손에 넣어도 여전히 내 마음 한 칸이 공허하고 헛헛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행복에 도달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하기에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어떤 새로운 욕망 대상을 찾아 신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행이 한성에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해 본다.

신영현(교양영어교육과정) 교수

### 삼학송 착잡한 시간들

요즘 학교 안을 살펴보면 붉기운은 느껴지지 않고 마음만 착잡하다. 수강신청 문제, 근로학생 수강신청 특혜 문제 등 새 학기가 시작된 후 제기된 학내 문제들이 방치된 채 시간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이런 일련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 간담회와 토의를 몇 차례 제안했다. 하지만 방학 중에 진행된 학생 토의는 저조한 학생 참여와 총학생회의 홍보 부족으로 실패했고, 이후에 진행하고 있는 간담회는 대학본부 측의 거절로 3월 3일부터 계속 연기되고 있다. 여러 가지 학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이를 실행할 분명한 의지를 지닌 구성원이 없는 것이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내 행정부서들은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받은 과제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학교 밖에서는 교육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학 교육정책이, 향후 대학가에 거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에는 교육부의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평가 2기 위원회'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학내 구성원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이전 학사구조개편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학교는 학내 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하는 형태가 아니라, 특별한 팀을 꾸리거나, 관련 부서가 문제를 담당해서 대응해왔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이러한 학교의 태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대학본부의 독단과 학교 전체의 무비판적 수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뢰와 협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만성적이라는 데 있다. 강의계획서 미비나, 수강신청책자가 늦게 올라오는 문제, 교양과목 정원 부족 등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이다. 이에 대한 학교의 대응 역시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공지하는 한편, 분반이나 정원 추가를 통해 교양과목 수강 정원을 급조해서 제공하는 식이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재검토하거나,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증요법만 계속하고 있으니, 다음 학기에 비슷한 문제들이 또 발생하는 수순은 너무 당연하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은 점점 학교에 권태를 느낀다. 이렇게 무더진 여론이 학내 문제에 대한 참여 저조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2월 21일, 드넓은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린 학생 간담회에 20명 남짓의 학생들만 덩그러니 앉아 있던 모습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처럼 학교 안은 학내구성원 사이의 불신과 권태로움으로 메말라가고 있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현재 학내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학내구성원들의 관심과 대학본부의 수용 그리고 2주기 평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학본부의 행정능력이 있다. 착잡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박종민 편집국장

### 기자수첩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다. 많은 이들이 이 계절이 주는 파스함과 설렘을 만끽하려고 들떠있다. 이번 봄은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한 느낌이 든다. 봄과 함께 진정한 '봄'이 올 것 같기 때문이다.

작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우리들은 긴 시간 동안 진실과 마주하기 위해 싸워왔다. 사건의 진상들이 밝혀질 때마다 우리들은 분노했고 진실에 다가갈수록 마음은 분별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이 심각하다며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 봄은 오는가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밝혀지지 않은 일들을 규명하는 것과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동안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받지 않았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지금껏 숨겨온 의혹들이 밝혀지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비로소 끝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탄핵 결정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국정, 다음 대선,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 문제, 청년 실업 등이 바로 그 예다. 그래서 봄이 온다고 확신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세월호 인양 작업 시작 등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를 통해 봄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지난 겨울 우리는 차가운 바람을 맞아 심한 감기몸살을 앓았다. 감기몸살이 다 나은 후, 이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길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지금 우리가 내디딘 첫 걸음을 시작으로 남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포근한 봄바람을 맞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이한신 기자 faith7631@naver.com

### 낙산에 올라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폭력 집회'로 탄핵을 이뤄냈다고 자축하는 모습이 보인다. 서울시가 촛불집회를 평화집회의 모범사례로 보고, 노벨 평화상 추천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평화집회의 상징인 촛불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비폭력적인 집회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과연 집회 추과 경찰 사이의 크고 작은 충돌만이 폭력의 유무를 정의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을까?

작년 11월 12일 광화문 광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하지만 이날 SNS에는 "교복입고 행진 하는데 딸아이가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친구가 성추행을 당해 경찰서에 왔었다",

###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이었던 촛불시위

"선생이나, 예쁘다며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 한 남성을 봤다"는 증언들이 이어졌다. 또한 헌팅을 목적으로 광장에 나온 남성, 촛불을 든 여고생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다며 접근하려는 남성이 쓴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평소 여성에게 가해지던 폭력이 집회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다. 집회 참가자들과 공권력 간의 무력 충돌은 없었는지 몰라도 많은 여성들은 집회 내부에서 일어난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오히려 공권력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했다. 집회현장은 분명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인 공간이었다.

한편, 집회 내에 '페미존'을 만들고 성희롱, 성추행을 막는 '페미 자경단'을 운영하며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페미니

스트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페미당당이라는 단체는 "집회에서 보면 패버리겠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기까지 했다.

그만큼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이었던 집회현장이 누군가에게는 '비폭력'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우리는 이런 참가자들이 우리와 함께 촛불을 들고 있었고, 이들은 비겁하게도 '비폭력'을 앞세운 집회 현장에서 약자에게 폭력적이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비폭력'의 이름으로 이번 집회를 보기 보다는 집회과정에서 일어난 또 다른 폭력들을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김태원(역사 3)

### 낙산만평

박종민(국문 4)



##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상담 신청 안내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에서는 재학생들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하여 **글쓰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글쓰기에 대해 고민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한성대학교 학부생
- 상담 기간 | 2017년 3월 6일(월) ~ 2017년 6월 2일(금)
- 상담 영역 | 리포트, 서평, 칼럼, 프레젠테이션 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글
- 상담 내용 | 주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목차 구성, 글의 전개, 문장 표현 등 글쓰기 전반
- 신청 방법 | ① 글쓰기 센터 홈페이지 상담의 메뉴에서 '상담' > 상담 신청 클릭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 ② 상담 희망 일시 24시간 이전에 신청(신청 확인은 MY PAGE)
- 비교과 포인트 | 지금 포인트 10점(최대 포인트 50점)
- 기타 문의 | 사고와 표현 연구실(진리관 104호, ☎ 02-760-4354)

###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 제11회 사진공모전

# 찰칵, 예술이 되나



### 응모 기간

4월 1일(토) ~ 5월 15일(월)  
오후 6시까지

### 참가 대상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  
(학부 · 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 공모전 주제

자유(주제의 제약이 없음)

### 응모 방법

사진공모전 신청서와 작품을 한성대신문사에  
직접 제출(사진은 8×10 크기로 인화)

### 작품 제출 장소

한성대신문사(학생회관 제1별관 2층)

### 사진공모전 신청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문사 방문 수령 가능

###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524호(6월 5일 발행)

### 상금

최우수상(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가작(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 문의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박종민 편집국장 010-6425-4852

- ※ 1인당 3점의 작품에 한해 받습니다.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 사진공모전 신청서를 작성해 응모작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 ※ 제출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최우수상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